

[로스쿨 합격기]

되고자 하는 열망을 바탕으로.....

이윤우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입학
- 금천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고등학교 법대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I. 로스쿨을 꿈꾸며...

어느 것 하나에도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제가 이런 합격기를 쓴다는 것이 부끄럽단 생각도 들었지만, 저의 미약한 경험과 조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늦은 대학 입학, 낮은 학점, 눈에 띄는 스펙도 없는 제가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조심스럽게 준비했던 경험담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쓴 글은 어디까지나 한 경험자로서 느낀 점일 뿐이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 지원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하게 되어서도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준비에 관심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커다란 소속감 없이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대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 숙부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 숙부는 저의 안일한 생활 태도에 대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의 법조인에 대한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빗대어 눈에 띄는 동기는 아닐지라도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무엇보다 그에 대한 열망이 가장 먼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비교적 단순한 동기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열정을 키워가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의 길을 끈기 있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III. 대학 생활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이미 입학한 선배들에게 조언들을 구했습니다. 학점 역시 대학원 진학에 중요한 변수이기에 꾸준한 학점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매우 늦추면서까지 학점을 높이라는 추천은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현재 위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지 대학원 진학뿐만 아니라 학점은 앞으로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 다녀오기 전 학점관리에 소홀했던 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감은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위치한 자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열매는 주어질 것이라고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꼭 권하고 싶은 바는 늘 교수님과의 친분을 쌓는 것입니다. 대학원 진학에서 결과론적인 숫자도 있지만, 대학원생을 직접 뵙게 되는 분들은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들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V. 영 어

영어 성적 역시 학점과 더불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된 말이지만 영어 성적도 여러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는 영어에 조금 더 자신이 있는 편이어서 현상 유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과거 친구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700초반 대의 토익 점수에서 두어달 간의 집중학습을 통해 900점까지 점수를 끌

어울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비록 현재 낮은 토익 점수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성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영어 점수는 쌓여온 점수인 학점과 달리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면 그에 따라 평균 이하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리트 점수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가 낮아 대학원의 눈높이가 낮아진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LC와 RC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한 공부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LC는 짧더라도 매일매일 성실히 시간을 투자하길 바랍니다. 다소 성취도 지수가 낮을 수도 있으나, 일정 이상의 시간이 투자되면 따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빗대어 볼 때 RC야 말로 영어 점수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RC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공부하고 시중에 많이 퍼져있는 풀이 스킵 중 자신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만 결정하여 그에 매진하길 권합니다. 적어도 800점 중반 이후의 점수대를 유지해야 다른 부분에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V. 최대 변수 리트와 논술

누가 뭐래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리트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높은 리트 점수를 얻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모의고사 문제 등을 풀면서 문제 푸는 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험 전까지 컨디션 조절에 충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다가도 시험 날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실망스런 결과를 얻은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리트는 문제가 안 풀리거나 성적이 잘 안나오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얽매어서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리트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당락의 지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낮은 리트 점수로도 영어, 혹은 학점, 그리고 면접 등으로 만회하여 배치표 상의 점수 비 대학보다 더 나은 곳을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리트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로지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실력을 높이는 것도 리트 점수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을 무시하여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대학원 진학에 그 점수가 반영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크게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모두가 평균점을 받을 때

자신만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그것 역시 불합격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적어도 기출 시험 정도는 직접 글을 써보고 첨삭을 받아보고 기본 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시험을 치를 때 요구되는 논술 분량은 꼭 지켜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정량에도 낮은 논술 점수로 1차 합격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VI. 결과는 면접보기 전에 나오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저는 낮은 학점, 평타의 영어 점수, 낮은 리트 점수를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만큼 가장 열심히 그리고 집중하여 준비했던 부분은 바로 면접이었습니다. 어떤 대학원에서는 면접자체를 형식적으로 보고, 어떤 대학원은 면접 비율이 높다고도 말하지만, 진학의 당락에 있어 결국 최종적 지표는 바로 면접이라 생각합니다. 1차 합격자들이 배수로 뽑힌 만큼 어떤 이들의 점수 차이는 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미세한 차이의 점수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다른 성적들이 좋아도 면접 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면 면접관이 만족해하기는 만무합니다. 반대로 다른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대학원생으로서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인다면 어떻게든 면접관은 그 학생을 뽑고자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리트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면접 상에서 방심해서도, 리트 점수가 아무리 낮더라도 면접 상에서 주눅들어서는 안됩니다.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자신만의 논리입니다. 주장하는 바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주장하는 것에 맞는 논리가 적절한 지 아닌 지에 따라 면접의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점은 중간에 주장하는 바를 바꿔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말한 부분에 오류가 발견되어 논리를 이어갈 수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겸허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오류를 우기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레갈 마인드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를 기초로 하여 법적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그 법적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언제나 면접에서 대담함에 있어 심오한 법학 지식은 아니더라도 레갈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VII. 글을 마치며...

학점을 성실히 관리하고, 영어와 리트 점수를 받았다면 역시나 고민되는 부분은 원서접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원 별로 전형방법이 다른 만큼 정확히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전형에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1차 합격은 기본적으로 정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쟁률이 낮게 되는 운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량에 비추어 조금 낮추거나 조금 높이는 형식의 전략적 계획을 짜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고자 하신다면 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최대한 키우길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야 조금 더 성실해지고 더 나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면접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나은 법조인의 길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약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 점 매우 감사드리고, 이 글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준 현진누나 감사합니다.